

광주시교육청, 방과 후 마을돌봄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기관

학교 밖 지역사회 활용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돌봄 필요한 초등학생

안전한 보살핌·지역사회 자원 활용한 돌봄 확대

광주시교육청이 23일 민간위탁 공모 심사를 거쳐 2021년 방과 후 마을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15개 기관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기관은 꿈꾸는부엉이마을학교, 빛고을남구마을허브사이트주민협의회, (사)플레이드림, 사회복지장착소 터, 동신

대중합사회복지관, 스토리텔링 매씨즈, 심시일 만나눔마을학교, 아이들세상지역아동센터, 그림이있는작은도서관, 온가족그림책작은도서관, (사)한국예술진흥회, 교육공동체어울림, 숲속작은도서관, 광주광역시봉선정소년문화의 집, 마을한바퀴 등 15개 기관이다.

방과 후 마을돌봄 프로그램 민간위탁 사업은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억8,000만 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지역특화 맞춤형사업이다.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 대한 안전한 보살핌과 지

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돌봄 확대 및 기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6개 기관에서 올해 15개 기관으로 확대된 방과 후 마을돌봄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사회복지관, 작은도서관 등을 활용해 마을에서 직접 초등학생을 돌보게 된다. 현재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3학년 이상이 주 대상이다.

사업기간은 2021년 4~12월 기관별 10~25명 내외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북아트, 뉴스포츠 체험, 타악기 드럼을 통한 음악적 소양을 증

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고 특색 있게 운영하고, 기관 당 1,200만 원을 지원 받게 된다.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김수강 과장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들이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마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친근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방역 및 위생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돌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윤희기자



무안공공도서관, '나는 꼬마 예술가' 프로그램

5~7세 유아 대상으로 매달 셋째 토요일마다 운영

무안공공도서관(관장 신미선)은 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미술 프로그램인 '책 속의 예술체험, 나는 꼬마 예술가'를 지난 20일 개강했다.

11월까지 매달 셋째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나는 꼬마 예술가'는 책과 연계한 유아 미술 체험 프로그램으로, 삽화 감상 및 생각 나누기, 색깔 및 촉감놀이 등 미술 전문가와 함께 하는 다양한 미술 활동으로 운영된다.

이번 1회차 수업에서는 김효정의 '안녕, 안녕, 안녕!'을 주제 도서로 선정하여 이름표 목걸이 만들기, 나와 가족을 그림으로 소개하기, 내 얼굴 점토로 표현하기 등 나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보호자는 "아이가 스

스로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워합니다. 이야기에 연계해서 자연스럽게 미술에 흥미를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선생님이 아이의 그림에 나타난 심리적인 부분을 해석해주셔서 몰랐던 아이의 마음을 알게 되어 감사했습니다."고 전했다.

무안공공도서관 관계자는 "유아기부터 도서관에 오는 일이 즐겁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도록 앞으로도 온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4월 17일에는 피터 레이놀즈의 '점'의 삽화 기법을 활용한 '핑거페인팅'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도서관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무안=이기성기자

전남교육청, 학부모와 함께하는 놀이 영상 만든다

총 5편 제작될 예정...이번 공개 영상은 1편 '맨손놀이'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집콕'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가족 간 소통을 위해 학부모와 함께하는 놀이영상을 제작해 일선 학교에 배포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학부모 놀이동아리와 공동으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슬기로운 집콕놀이-누거니! 받거니!' 영상을 제작해 도내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영상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놀이로 풀고, 부모-자녀 간 정서적 교감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교육청과 순천의 학부모 놀이동아리(근지곤지 팀. 노마야 놀자팀)가 협력해 제작한다. 영상은 총 5편 제작될 예정이며 이번에 공개할 영상은 1편 '맨손놀이'이다.

'맨손놀이' 영상에 수록된 놀이는 △ 369 △

만두만두 △ 만세 가위바위보 △ 얼굴 디비디비 등 4가지로 가정과 학교에서 누구나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촬영에 참여한 학부모 놀이 동아리 '근지곤지' 대표 최미선 학부모는 "도교육청과 협력해 놀이 영상을 만들게 되어 매우 보람을 느낀다."면서 "모두 어려운 이 시기 우리 학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놀이를 통해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웃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놀이는 자녀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소통의 방법이다."면서 "이번 놀이 영상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가정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교육청은 앞으로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자이며 동반자로 섬기며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남교육청은 오는 4월에는 '슬기로운 집콕놀이' 2편을 제작, 5월 가정의 달에 맞추어 공개할 예정이며, 영상은 전남교육통 홈페이지, 유튜브, 전남 학부모 한마당 밴드에 탑재 된다.

김정환기자

나주공공도서관, '책과 함께 인생 출발' 북스타트

영유아들 대상...북스타트 책꾸러미 나눠주고 관련 후속프로그램 진행

나주공공도서관(관장 전만석)은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나눠주고 관련 후속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북(book)스타트'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북스타트 책꾸러미는 북스타트코리아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영유아 시기부터 올바른 독서습관을 키워주고 부모에게 필요한 육아 및 독서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무료로 책 꾸러미를 배부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그림책 2

권에서 5권까지 확대하고, 부모 가이드북, 기념품, 가방으로 구성하여 배부할 계획이다. 배부 대상은 나주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나주지사)을 지참하여 나주공공도서관 정보봉사실(평일 9시~6시까지)에서 수령하면 된다. 또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책놀이 활동인 북스타트 후속프로그램과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찾아가는 북스타트 후속 프로그램도 4월부터 운영한다.

기동취재본부

북스타트 책꾸러미 안내

아기 생일 단계를 11단계로 맞출 수 있어요(같은 단계 중복 불가)

0~1세 / 1~2세 / 2~3세 / 3~4세 / 4~5세 / 5~6세 / 6~7세 / 7~8세 / 8~9세 / 9~10세

신청기간: 2021.03.25 ~ 2021.04.15

신청처: 나주공공도서관 정보봉사실 (평일 9시~6시)

문의: 061-330-6750, 6721

